

후원안내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3월 후원미사는 20일, 4월 후원미사는 17일, 5월 후원미사는 15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2017년 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수입내역

수입 총액	28,251,327	전월이월금	1,179,067
지 로	4,115,110	우리은행	8,772,640
국민은행	6,240,240	하나은행	1,631,120
조흥은행	120,010	신한은행	1,245,120
외환은행	977,640	제일은행	1,200,000
농 협	1,775,290	기업은행	425,090
우 체 국	80,000	지정기탁	490,000
		교구보조	-

지출내역

항목	지출	세부내역	
베네레함어린이집	7,0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0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벳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6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소 계	10,0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5,000,000	장기수선충당금 등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5,285,00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49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0,800,000	잔액(이월금)	7,451,327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www.seoulmigrant.net

2017. 2 / 제8호

펴낸날 2017. 2. 20 펴낸곳 이주사목위원회 펴낸이 남창현 편집 김평안 주소 (우)02872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95 노동사목회관 4층 이주사목위원회
전화 (02)924-9970~1 팩스 (02)924-9972 이메일 migrant@catholic.or.kr 홈페이지 www.seoulmigrant.net

신부님글

즐거움 중에도 주님을 섬겨리.

새해의 시작점에 사랑의 원천이시며 세상의 평화를 이루어 가시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가 이 땅의 이주민과 후원자여러분에게 내리시를 기원합니다.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이주사목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위원회 안에 사단법인 서울가톨릭 이주·난민센터를 설립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 안에서의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동안 정부지원금으로 운영되었던 성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정부와의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이 종료되면서 교회정신으로 사목하고자 서울가톨릭 상호문화센터로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마고네 공부방은 이사하여 새로운 보금자리를 잡았으며 베다니아의 집은 그동안 묵혀두었던 수녀원공간을 예전처럼 수녀님이 상주하면서 환자 이주민들을 돌보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보수하였습니다. 정신없이 보낸 3개월이었는데 앞으로도 몇 달은 더 정신없을 듯합니다.

예전에 본당에 있을 때, 연령회장님의 부탁으로 장례미사를 파주에 있는 한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 보니 망자는 신자가 아니었고 본당신자분의 아들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비록 신자는 아니었지만 아들을 위해 장례미사를 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사를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망자를 위한 장례미사를 드렸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망자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비록 하느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아들을 위해서 청하면 분명히 당신의 아들을 편안하게 받아들여 줄 것이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과 믿음이 연령회장님의 마음을, 그리고 저의 마음을 움직였듯이 분명히 하느님 아버지는 그분의 아들을 당신의 품안에 품어주시며 평화를 주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세상에, 하느님께 청합니다. 간절하기도 간절하지 않기도, 가능한 것도 불가능하지 않은 것도,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가끔 혹은 자주,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깊은 고민을 하고 청합니다. 가끔 어 느 것은 청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면 청하는 만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통하여 먼저 이루도록 이끄시고, 당신의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시간, 능력, 권력, 지식, 힘, 금전, 기도, 인내, 친절... 등을 나눌 때 우리의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올해 이주사목위원회는 처음에 언급했듯이 새롭게 변화하며 시작했기에 많은 바램들이 이루어지기를 청합니다. 이 시작의 자리에서 저는 먼저 저 자신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고집부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사목할 수 있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후원자여러분에게는 이주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 기도, 그리고 가진 것을 기쁘게 내어주시기를 청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주민이 틀림도 다름도 아닌 똑같은 사람임을, 그래서 존중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받아들이기를 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느님 아버지에게는 저의 이 모든 청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분명 하느님께서서는 이주사목위원회에 필요한 것이면 꼭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느님! ^^*

마지막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주민과 후원자여러분에게 가득 머무르시기를 영원합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김 평 안 마르코 신부

공동체 소식

베트남공동체 소식*

베트남에서는 설날 미사에 나무를 만들어 말씀사탕을 걸어놓고 하나씩 뜯는 행사(LOC THANH 녹탄. 뜻: 봄의 새싹이 움튼다)를 합니다. 이들은 이 말씀사탕을 한 해의 하느님 메시지라고 여기고 말씀을 기억하며 자합니다. 가끔 말씀사탕으로 세뱃돈을 걸어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베트남공동체는 이번 설날에 고향과 가족을 떠난 베트남 이주민 330여명이 말씀사탕의 하느님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사 후 베트남 전통음식을 나누며 설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뜻 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남미공동체 소식*

남미공동체는 1월 설날 행사로 1월 25일에 다문화가족과 마고네공부방 어린이들이 위원장 신부님과 함께 눈썰매장을, 29일에는 남미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들 60여명이 롯데월드어드벤처를 다녀왔습니다. 다채로운 체험과 고국을 떠난 다른 이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뮤지컬관람



▲ 설날행사

필리핀공동체 소식*

필리핀공동체에서는 1월 15일에 아기 예수님을 위한 행사로 구유에 계신 아기 예수님을 위해 전통춤을 추며 찬양하는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필리핀 3대 축제라고 불릴 만큼 큰 행사이며 많은 필리핀 사람들은 아기예수상이 기적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 그 유래로는 1521년 포르투갈 탐험가 마젤란이 가톨릭을 선교하기 위해 필리핀에 왔고 세부 섬의 원주민 지도자 우마본의 아내인 후아나 여왕에게 아기 예수상을 선물했습니다. 필리핀 최초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이 아기 예수를 신앙의 중심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마젤란이 다른 원주민과의 싸움에서 죽고, 스페인 원정대가 필리핀에서 철수하자, 원주민 가톨릭 신자들은 자신을 인도한 사목자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기 예수를 바라보며 44년간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다고 합니다. 1월 세부에서는 '시놀로그 페스티벌(Sinolug Festival)'(시놀로그: 세부어로 '춤'이라는 뜻)을 9일 동안 진행하는데 아기예수(산토니노, Sto Nino)를 기리기 위한 종교 축제이다. 축제동안 아기예수를 찬양하는 미사와 아기예수 상을 들고 춤을 추는 이색적인 퍼레이드를 선보인다고 합니다.



문화알림

ABOUT Peru 페루*



- 수도 / 리마
- 종교 / 불로마가톨릭교(81.3%), 복음교회(12.5%), 기타(6.2%)
- 기후 / 온난다습, 열대성 기후
- 인구 / 약 3,044만명(세계 43위)
- 기념일
 - 1월 신정(1일)
 - 3월 부활절(3월 또는 4월 중)¹⁾
 - 5월 노동절(1일)
 - 7월 독립기념일(28일 ~ 29일)²⁾
 - 8월 리마 수호성녀(Santa Rosa)(30일)³⁾
 - 10월 앙가모스(Angamos)전투기념일(8일)⁴⁾
 - 11월 만성절(모든 성인의 날)(1일)
 - 12월 성모무염시태일(8일), 성탄절(25일), 연말(31일)



1) 부활절(3월 또는 4월)

가톨릭 국가인 페루에서 부활절 행사는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1년 중 최고의 축제 기간으로 꼽힌다. 특히 관광객이 많은 쿠스코 지역의 부활절 행사가 가장 주목받는다. 부활절 주간에는 1주일 내내 지역마다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가 이어진다.

2) 독립기념일(7월 28일~29일)

페루가 스페인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날(1821년 7월 28일)을 기념하는 날로 군인들의 행진이 이어지기도 하며 각 가정과 직장, 공공장소 등에서는 기념일을 전후하여 약 한 달씩 두 달 동안 국기 게양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리마 수호성녀(로사) 기념일(8월 30일)

성녀는 어릴 때부터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기에, 도미니코 제3회에 입회한 후 보속과 신비의 관상 생활에 위대한 진보를 이루었다. 은수 생활 중에 환시를 보고, 초자연적인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며, 그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1617년 8월 24일 세상을 떠났고 클레멘스 10세에 의해 1671년 시성되었다. 남아메리카인들의 공경 받는 첫 번째 성인이 되었다.

4) 앙가모스 전투 기념일(10월 8일)

1879년 10월 8일에 안가모(Angamo) 지역에서 칠레 해군 전투함과 페루 해군의 기함간에 두 시간 이상의 치열한 함대함 전투가 벌어진다. 이 전투에서 전사한 미구엘 그라우 제독은 오늘날 페루 최고의 전쟁 영웅으로 널리 추앙받으며 페루인들로부터 최고의 페루인(Peruvian of the Millennium)으로 기억되고 있다.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남미공동체*

남미공동체 담당 김 안젤라 수녀(위로의 성모 수녀회 소속)는 스페인어 권 출신의 사제 및 수도자, 평신도 봉사자들과 함께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에콰도르, 나카라과 등에서 스페인어권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사목을 하고 있다.

2001년 5월에 공식적으로 남미공동체가 구성되었으며 **보문동 노동사목회관(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11시), 역곡 곤솔라타 선교수도회(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 4시)에서 스페인어 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또한 **피정(설날, 추석), 교리 교육(세례 및 견진성사, 첫 영성체 준비), 성지순례, 야외 소풍** 등을 통한 사목활동을 통해 영적생활에 대한 도움과 이주민들 간의 교류를 돕고 있다.

이 밖에도 도움이 필요한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 산재, 의료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 항공권 구입에 관한 도움 및 귀국지원, 강제출국조치를 당한 노동자를 위한 외국인보호소 방문 및 귀국지원 등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